

‘음악학’ 지평 넓히는 음악출판의 새 경향

다양화·차별화현상 뚜렷... ‘음악운동’ 지향도

음악은 과연 ‘들어서 좋으면 그뿐’일까? 음악을 즐기는 것과 음악을 아는 것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음악을 만국공통어라고들 하는데 음악의 문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도 음악은 만국공통어일 수 있는가?

선불리 어렵다고 단언할 성질의 질문은 아니지만, 음악을 책, 곧 문자로 번역하는 음악도서 출판은 일단 음악을 알고 이해하는 일과 관련된다. 그것은 음악의 樂理나 학설에 관한 지식일 수도 있고, 혹은 음악을 보다 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일과 관련되기도 한다.

이처럼 음악을 알고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음악도서 출판이 최근 활기의 조짐을 띠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악보출판이 음악도서의 압도적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교과서용으로 집필된 것 이외엔 음악학 혹은 음악론 관련도서의 수가 극히 적기는 하다. 그것은 말 그대로 활기의 ‘조짐’일 뿐이다. 그러나, 그 조짐이 점차 적극적인 활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은 우리 음악출판의 소중한 불씨가 된다.

특히, 이즈음의 음악학 관련도서 출판이 일견 ‘和聲’의’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서구의 첨단이론을 적극 수용해서 음악학의 깊이를 천착하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이른바 ‘종족음악론’에서 보듯 음악을 문화현상의 하나로 파악함으로써 음악학의 넓이를 일구는 책들이 나오고 있다. 또, 일련의 음악평론집과 함께, 음악의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고 나아가 ‘음악운동’으로의 지향을 보이는 책들도 연이어 출간되고 있다.

서구의 첨단이론과 종족음악론이 공존

이 가운데 음악이론의 본격적인 깊이를 천착한 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85년부터 무크 형식으로 간행되고 있는 「음악과 이론」(심설당). 서우석교수(서울대)가 책임편집을 맡아 지금까지 3집을 펴냈는데, 음악기호학(2집)·음악현상학(3집) 등 특정주제에 대한 집중적인 소개와 분석이 돋보인다. 다만, 아쉬운 것은 87년에 간행된 제3집에서 예고된, 음향학을 특집으로 다룬 제4집의 출간이 이제껏 미뤄지고 있다는 점.

서우석, 전지호, 이장직 등의 논문을 모은 「西洋音樂의 受容과 發展」(나남)은 음악기호학, 음악현상학, 음악사회학과 관련된 서구의 첨단이론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음악론 정립의

악보가 압도적 주류를 차지하던

음악출판에 새 물결이 일고 있다.

서구의 첨단이론 수용으로

음악학의 깊이를 천착하는 책을 비롯해,

‘종족음악론’적 시각의 도입으로

음악론의 지평을 넓히는 책,

그리고 음악의 사회적

관련양상을 캐묻는 책들이

다투어 선을 보이고 있다.

방법론적 가능성을 여러 갈래로 제시하고 있다.

번역서로는 악보와 청음을 매개하는 편집자 및 연주가의 곡 해석문제를 개론서적으로 해설한 「음악해석론」(씨스톤 다투/서인정, 청하), 팝의 물리적·양적 측면과 심리적·질적 측면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는 음악학 입문서 「팝이란 무엇인가」(에른스트 레비 외/전지호, 삼호출판사) 등이 나와 있다. 「음악학이란 무엇인가」(글렌 헤이돈/서우석, 청한)는 1940년까지의 음악학의 고전이론을 개괄한 이 방면의 입문서로 현재 5판째가 서점에 나와있다.

음악의 樂理와 학설에 관한 외국이론가들의 주요 문헌자료를 엄선하여 편역한 「音樂과 知識」(이강숙, 민음사)도 비교적 목직한 전문성을 지니기는 하나, 편역자가 말하는 “음악의 본질을 이해 내지 설명하는 일에 대한 우리 음악계의 무관심”을 일깨우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위의 책들이 대부분 서구의 음악이론을 수용하고 있는데 반해, 「種族音樂과 文化」(이강숙 편, 민음사), 「민족음악학」(A.P. 메리엄/이기우) 등은 다분히 ‘제3세계적’이다. 음악학과 문화인류학간의 결합으로 이해될 수 있는 종족음악론적 지향을 보이는 이 책들은, 이른바 예술음악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든 문화 속의 모든 음악을 음악이 탄생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연구함으로써 음악학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평가된다.

「音樂學」(음악학연구회 편, 민음사)의 경우는 感知대상으로서의 음악을 연구하는 내적 시각과, 관찰대상으로서의 음악을 연구하는 외적 시각을 하나로 포괄하는 ‘통합음악학’적 시도를 보이고 있어 특징적이다. 이강숙, 이진용,



다양한 경향의 최신이론을 수용한 음악학 도서출판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 광경.

김춘미 등 국내연구자들의 연구논문과 칼 달 하우스, 스파르쇼트 등 외국학자들의 이론을 같이 묶었다.

음악의 의미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캐묻는 책들도 눈에 띄는데, 「音樂社會의 構造」(에베렛 헬름/성의정, 문학과지성사), 「音樂의 社會史」(이장직, 전예원), 「음악과 사회」(이장직, 청하) 등이 대표적.

「음악사회의 구조」는 음악의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현대의 음악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보고를 수행하고 있고, 「음악의 사회사」 및 「음악과 사회」는 음악사회학의 시각에서 현상비평을 벌여온 저자의 평론집이다. 특히, 후자는 종래의 음악평론과는 달리 “한 연주회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우리나라의 음악풍토, 즉 음악의 사회적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만하다.

음악의 사회적 의미를 보다 급진적으로, 그리고 다소 ‘운동권적’인 시각으로 밀고나간 책으로는 최근 제3집째가 간행된 무크 「노래」(노래동인 편, 이론과실천사)가 있다. ‘노래가사 비평부르기’가 대학가와 노동현장에서 유행하던 1984년에 제1집이 창간돼 대중음악의 문제(1집), 고급음악의 문제(2집)를 문화운동의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해 왔고, 제3집은 새롭게 지향돼야 할 음악적 이념으로서의 민족음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있어, 그간 ‘가사운동’으로 폄하되기도 한 노래운동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음악출판의 대중적 저변 확충돼야

이밖에 우리의 전통음악을 재해석한 이론서로 「四物놀이란 무엇인가」(김현선, 귀인사),

「인간과 음악」(백대웅, 이론과실천사) 등이 최근 간행돼 이채롭다. 앞의 책은 사물놀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서구지향적 가치관에 대응하는 우리음악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세계음악으로의 벽찬 전망’을 드러내고 있고, 후자는 국악과 양악의 대립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소, 통합하려는 저자의 의욕이 돋보인다.

한편, 박용구, 이강숙, 강석희, 서우석 등의 일련의 음악평론집들과 함께, 「삶과 죽음의 음악」(한상우, 청한), 「선율, 온 영혼의 불꽃」(한상우, 청한), 「러시아의 음악가들」(서우석, 청한), 「이 한장의 명반」(안동림, 현암사) 등 일반대중을 위한 음악감상 안내서들이 다양하게 선을 보여 음악출판의 대중적 저변을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민경찬씨는 “서양음악 이론의 수용과 발전의 양상 및 우리 음악학이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지평의 탐색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나아가 이를 계기로 “보다 진일보한 한국음악이론의 독창적 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 의의를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같은 음악론 출판은 그 다양성에 있어 아직까지는 ‘교향악적’이기보다는 ‘실내악적’인 것이 사실이다. 다양한 연구와 이론들이 제각각의 층위를 이루는 음악출판의 교향악이 연주되기 위해서는 음악이론가들의 노력과, 특히 몇몇 출판사에 한정돼 있는 음악출판의 저변을 확충시키는 데 출판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유도돼야 할 것이다.

—강철주 기자